

핵심 요약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DNB)은 인터넷 시대에 탄생했으며, 탄생부터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게이밍, 리테일, 교육 등 다양한 업계에 걸쳐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은 레거시 기술과 프로세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즐기려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술 리서치 기관인 IDC에 따르면, DNB는 2026년까지 기술에 최대 1289억 달러(USD)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kamai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써드파티 리서치 기관 TechnologyAdvice와 함께 아시아 전역의 DNB의 기술 투자 우선순위와 기술 리더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호주, 동남아시아, 인도, 중화권에서 200여 명의 기술 리더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DNB의 비즈니스 우선순위와 기술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술 중심 기업들은 솔루션 공급업체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은 모두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을까요?

시장 경쟁이 성숙해지든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기반 때문이든, 설문 조사에 참여한 DNB 약 10곳 중 9곳은 향후 12개월 동안 효율성과 생산성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DNB의 빠른 클라우드 도입을 보여주는 업계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2021~2026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출의 예상 성장률은 37%로, 비클라우드 소프트웨어(16%)와 IT 서비스(11%)를 앞질렀습니다.

이 지역의 DNB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API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듈식 아키텍처를 통해 빠르게 확장하고 증가하는 고객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서비스의 복잡한 매트릭스가 되어 DNB를 더 큰 사이버 취약점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의 어느 단계에 있든, 이 지역의 DNB는 보안이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의 가장 큰 격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가 예산이나 컴플라이언스 문제보다 이 문제를 먼저 꼽을 만큼 점점 더 복잡해지는 IT 인프라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복잡성 증가에 따른 이러한 성장통은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 중이거나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알아보세요.